

“지역 문화 새 지평 열겠다”

문화커뮤니티 ‘금토’ 정기총회... 박종대 상임이사 취임

2009년 02월 23일 (월)

박지영



▲ (사)문화커뮤니티 금토는 지난 20일 오후 춘천 귀빈레스토랑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. 박지영

지역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생산하고, 나누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(사)문화커뮤니티 ‘금토’가 새출발을 선언했다.

(사)문화커뮤니티 ‘금토’(이사장 이원상)는 사단법인으로 재발족한 뒤 첫 정기총회를 20일 오후 춘천 귀빈레스토랑에서 개최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.

이날 총회에서는 새로 취임한 박종대 신임 상임이사과 유현옥 전 상임이사의 이·취임식이 있었으며, 2008년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인준했다.

신임 박종대 상임이사는 “지역주민과 함께 했던 그동안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발전시켜 ‘금토’가 지역의 워낭소리 같은 울림이 되도록 하겠다”고 취임인사를 했다.

춘천시문화재단 상임이사과 자리를 옮긴 유현옥 전 상임이사는 “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날 정기총회에는 이광준 춘천시장, 최지순 도예총회장, 함광복 춘천시문화재단 이사장, 서상훈·김혜혜 춘천시의원 등 지역인사와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.

(사)‘금토’는 지난 2001년 1월 문화영역의 비영리단체로 출발해 2007년 12월 사단법인으로 재발족했으며 현재 임원과 정회원, 준회원, 후원회원 등 149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. 문화사랑방 포럼, 지역문화연구조사사업, 문화콘텐츠개발사업, 춘천아트페스티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 박지영 jyp@kado.net

.....
© 강원도민일보(<http://www.kado.net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.....

 